

지역 매 아리

김제시보건소-전북지역암센터
6대 암 대상 검진 실시

김제시보건소와 전북지역암센터가 연계한 국가암 검진 사업은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 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의 완치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 차원에서의 사업이며,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5대 암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8월부터는 폐암이 추가돼 총 6개 암에 대한 검진이 진행된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암 발생의 3분의 1은 예방활동 실천으로 예방이 가능하고, 3분의 1은 조기 진단 및 조기 치료로 완치가 가능하며, 나머지 3분의 1의 암환자도 적절한 치료를 하면 완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암검진이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암이 상당히 진행되기 전에는 뚜렷한 증상이 없기 때문이다. 김제시보건소 관계자는 대부분 환자들은 몸에 이상증세를 느껴야만 병원을 찾는데 그럴 경우 이미 수술로 제거할 수 없을 만큼 암이 커져 있거나 다른 조직으로 퍼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이상이나 증상이 없고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될 때 검사를 받으므로서 혹시 있을지 모를 암을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을 권장한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보건소, 자살예방 안전망 구축

김제시보건소(소장 김형희)는 생명을 존중하는 자살없는 건강한 김제시가 되도록 자살예방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팔을 걷었다.

김제시는 최근 3년간 40대~80대에 높은 자살률을 보이며 특히 60대 이상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에 생명사랑 환경조성 사업으로 만경을 능제저수지, 금구면 금평저수지 백산면 관망대 등 일원에 "별 일 없지?" "당신은 매우 특별한 사람입니다." "자가 우울척도검사" 등 생명사랑 꽃말을 설치하였으며 생명사랑 숙박업소 10곳에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 물티슈, 각티슈 배부 등 생명사랑 실천가게인 마트, 나들가게, 농약사, 철물점 등 78곳에 리플릿, 포스터 등을 배부하여 생명사랑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자살위험을 발견하는 경우 정신건강서비스에 대해 안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울증의 조기발견 및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자살률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멘토링 사업 및 정신질환, 신체질환을 호소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BTS, 서머패키지' 촬영

소양 오성 한옥마을 배경 영상 공개

최근 방탄소년단(BTS)이 극비리에 완주군을 다녀간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완주에 머물며 촬영한 영상이 공개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16일 방탄소년단은 공식 SNS 계정과 유튜브 채널에 '2019 서머패키지 인 코리아' 프리뷰 영상을 공개했다.

1분30초의 짧은 영상 속 방탄소년단은 고즈넉한 한옥을 배경으로 개량한복 스타일의 옷을 입고 등장한다. 이에 더해 갓, 부채, 기와 등이 등장하며 한국적인 느낌을 물씬 풍긴다.

특히, 배경이 된 한옥은 완주군 소양면의 오성한옥마을이다.

오성한옥마을은 한 달에 평균 1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관광지로 종남산과 서방산이 병풍처럼 마을을 둘러싸고 맑은 계곡과 오성제가 있어 수려한 경치를 자랑한다. 뛰어난 자연과 한옥이 어우러지면서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공간이다. 방탄소년단도 이러한 정취에 반해 오성한옥마을을 촬영장소로



방탄소년단은 공식 SNS 계정과 유튜브 채널에 완주군에 머물며 촬영한 '2019 서머패키지 인 코리아' 프리뷰 영상을 공개했다.

점찍었다는 후문이다.

인근 주민들은 "한옥마을에 스타프들과 함께 1주일 정도를 머무른 것으로 안다"며 "다들 한옥에 깊은 관심을 보였고, 워낙 비밀유지를 해서 주민들도 쉬쉬했다"고 전했다.

또한 그동안 방탄소년단의 서머패키지가 가이드북 형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에 불 때 이번 서머패키지에는 최근 SNS를 통해 알려진 경각산 패러글라이딩 등 완주 곳곳이 담길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이 영상은 짧은 시간에 조회수 140만회를 훌쩍 넘기면서 전 세계 팬들의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세계적인 스타인 방탄소년단이 완주를 찾아줘 고맙고, 크게 환영한다"며 "방탄소년단이 바라 본 우리 완주의 모습이 몹시 궁금하고, 서머패키지가 많이 기다려진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동안 방탄소년단은 2016년 두바이, 2017년 필리핀 코론섬, 2017년 타이완 등에서 '서머패키지'를 촬영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지난 16일 완주군은 대학생 청년인턴사업 참여자 대상으로 '완주 바로알기 워크숍'을 개최했다.

완주군, '완주 바로알기 워크숍' 진행

완주군이 대학생 청년인턴사업 참여자들에게 완주의 곳곳을 알렸다.

완주군은 최근 완주군 대학생 청년인턴사업 참여자 20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완주 바로알기 워크숍'을 열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대학생 청년 인턴사업을 추진 중인 완주군은 대학생들의 직무경험, 진로 역량강화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를 보다 깊이 이해할 기회를 마련하고자 이번 완주 바로알기 워크숍을 준비했다. 참여자들은 산체문화예술촌과 구이솔박물관, 로컬푸드 직매장, 하이트 공장 등 완주군 문화 예술 명소와 기업을 방문해 현장 곳곳을 눈에 담

았다. 이날 워크숍을 통해 산체문화예술촌을 방문한 한 학생은 "근처에 살고 있어 늘 지나치는 곳인데 이렇게 자세히 본 적은 없었다"며 "일제강점기 시대의 아픔이 고스란히 담긴 양곡 수탈 창고에 현대 문화예술이 어우러져 더욱 의미있는 곳을 알게됐다"고 참여 소감을 전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완주군 주민으로서 지역 문화와 정책, 기업들에 대한 이해는 성숙한 주민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다"며 "이번 행사가 청년들이 완주에 대해 더 잘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지역 사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당부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지평선축제 제전위, 김제지평선축제 홍보 리플릿 제작

김제시지평선축제 제전위원회(위원장 정희문)에서는 오는 9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김제시내 및 벽골제에서 개최되는 건강한 축제! 신나는 축제! 주제인, '제21회 김제지평선축제에서 신나게 즐겨요' 홍보 리플릿을 제작했다.

지평선축제 제전위원회에서는 가장 한국적인 농경문화축제인 김제지평선축제가 2019년 올해부터 10일간 개최됨에 따라서 이제, 김제시민의 위대함을 보여줄 때가 되었고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힘차게 도약하는 김제지평선축제가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전 세계인의 화합의 장으로 승화시키자는 취지로 홍보 리플릿을 제작 배포할 계획이다.

이번 제작한 제21회 김제지평선축제에서 신나게 즐겨요 홍보 리플릿에는 19개 읍면동 방문하여 배부 설명하고 김제시 기관단체, 김제 향우회, 기업체, 김제 주유소 등에 비치, 배부할 계획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만경 외애밋들 들노래' 소동마을서 울리다

김제시, '8.15광복절' 기념 시연

김제시 만경을 소동마을에서는 지난 15일 8.15광복절 및 백중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김만경 외애밋들 들노래 시연'을 하고 마을주민들은 모처럼 무더위 속에서 잠시나마 휴식을 취하고 의미 있는 만경들노래를 들을 수 있었다.

이날 행사에는 소동마을 이장 안용태, 준비위원장 이보두, 김만경 외애밋들 들노래 대표 박보현님과 회원들 마을주민등 200여명이 함께 참석하고 박준배 김제시장님께서 소동마을을 찾아 풍년농사 이루도록 주민들을 격려했다. 이에 소동마을 이장 안용태님은 김제역 kxx정차를 이뤄낸 박준배 시장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드리자고 하여 훈훈한 마을 잔치가 되었다.

김만경 외애밋들 들노래는 만경을 일원에서 농업노동요를 부르면서 농



지난 15일 김제시 만경을 소동마을에서는 '김만경 외애밋들 들노래' 시연회를 가졌다.

사일을 하는 전통 민속놀이로 만경(萬頃)은 글자 그대로 풀면 두둑이 만개라는 뜻으로, 이는 곧 들이 넓다는 뜻이다. 만경을 대동리 소동마을 태생 (고)이부휘 등으로부터 농요의 가사를 수집하여 1996년 봄부터 가창자와 농부들을 동원하여 모심기와 김매기, 벼베기, 등집하기 등을 실제로 실행하면서 김제문화원에서 35곡의

농요를 채록하였다.

현재는 김제지평선축제 등에서 재현되고 있으며, 박보현에 의해 '모심는 노래' 등 11곡의 구전농요가 전승되고 있다. 다가오는 9월4일에는 김만경 외애밋들 들노래를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등재를 위한 시연회를 가질 예정이며 이 역시 소동마을에서 제현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미디어센터, '어른은 영화보고 아이는 체험하고' 진행

완주미디어센터가 가족 모두가 즐기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 16일 완주군에 따르면 완주미디어센터에서는 부모들의 여가활동을 지원하고자 '어른은 영화보고 아이는 체험하고'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17일 오후 1시부터 진행된 프로그램은 아이와 동행한 부모는 영화 관람

을 아이들이 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7세와 초등학생은 스포츠선 애니메이션 제작을 체험하고 5~6세는 영화감상놀이, 4세 이하 아이들은 놀이방에서 돌봄 선생님 과 시간을 보내게 된다. 모두 무료로 이뤄진다.

/완주=이종복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